만해 스님 창간 '유심', 詩문예지로 재창간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9월 1일자로 '유심' 재창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배를 띄우는 흐름은 그 근원이 멀도다. 송이 큰 꽃나무는 그 뿌리가 깊도다.〈중략〉 가자 가자 사막도 아닌 빙해도 아닌 우리의 고원(故園) 아니 가면 뉘라서 보랴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매화."

1918년 9월 1일 창간한 〈유심(唯心)〉 제1호에 수록된 만해 스님의 창간사 '처음에 씀' 중 일부다. 배를 띄워 매화를 찾겠다는 만해 스님의 창간사에서 당시 대중들의 의식을 계몽시키려했던 스님의 서원을 알 수 있다.

국판 60여 페이지의 〈유심〉은 불교 교양지를 표방했다. 잡지의 글들은 주로 만해 스님이 썼지만 박한영, 백용성, 권상로, 이능화, 김남전, 최남선, 최린, 현상윤 등도 주요 필자로 참여했다.

박한영은 '타고르의 시관'을, 만해 스님은 타고르의 '생의 실현'을 번역했고, 3 · 1운동의 가장 선봉에 섰던 최린은 〈유심〉 창간호에 '시아수양관(是我修養觀)'이라는 제하의 글을 썼다. 육당 최남선은 '동정(同情)바늘 필요(必要) 잇는 자 되지 말라' 등 청년의 수양과 나아갈 지표를 제시하는 글들을 발표했다. 〈유심〉은 당시에는 드물게 '문예공모' 코너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유심〉 제3호에는 '당선 문예란'을 통해 그동안 응모했던 결과를 발표 · 시상하기도 했다.

〈유심〉 창간호 이후 제2호는 그해 10월, 제3호는 12월에 잇달아 발행된다. 하지만 〈유심〉은 일본 총독부의 탄압과 3 · 1운동 준비로 제3호로 중단됐고, 1944년 만해 스님이 원적에 들 때까지 복간되지 못했다.

〈유심〉이 다시 세상에 빛을 본 것은 설악 무산 스님이 2001년 다시 발간하면서부터다. 당시 무산 스님이 이끌던 만해기념사업회는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유심〉 복간을 결정했고, 이내 한국 최고의 문학전문지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 유심작품상을 제정하면서부터는 신인 문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 12월호(통권 92호)에서 종간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23년,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후학 문인들이 〈유심〉을 재창간하고 시 전문 계간지로 출발을 알렸다.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 이하 선양회)는 8월 29일 서울 종로 소재 선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해 스님이 〈유심〉을 창간했던 1918년 9월 1일에 맞춰, 2023년 9월 1일자로 〈유심〉을 재창간하고 재창간 1호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9월 1일자로 〈유심〉을 재창간하고 재창간 1호를 발행했다. 8월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진 왼쪽부터)권영민 선양회 이사장, 신달자 〈유심〉 편집주간, 이숭원 · 신철규 편집위원이 재창간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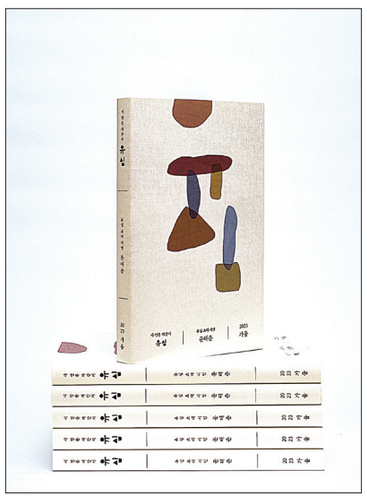
"만해 · 무산 스님 사상 바탕 인간 정신 회복 앞장설 것" 내년부터 '무산賞' 제정운영 9월 23일 기념 시낭송회도

권영민 선양회 이사장은 "작금의 사회는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어서 인간성 회복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만해 스님의 민족의식과 자유 평등 사상, 무산 스님이 강조해오신 조화 상생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문학 매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 선지식의 사상에 기반한 웅숭깊은 문학 정신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양회는 〈유심〉을 재창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창간된 〈유심〉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문인인 신달자 시인이 편집주간을 맡았으며, 편집위원으로는 이숭원 문학평론가 · 김지윤 시인 · 신철규 시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회의를 거듭했고, 만해 · 무산 스님의 문학 정신을 잡지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각고의 노력이 〈유심〉을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도록 했다.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표지, 편집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개편했고, 에세이와 인터뷰 등도 추가했다.

재창간호의 초대 시인은 제주불교방송 총괄국장이기도한 문태준 시인이다.



〈유심〉은 1918년 9월 1일 창간됐다. 이에 맞춰 9월 1일자로 재창간된 〈유심〉의 모습. 현대적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문태준 시인은 1994년 등단 이래 동서문학상 · 유심문학상 · 미당문학상 · 소월시문학상 · 정지용문학상 등 국내 걸출한 문학상을 휩쓴 불교 문인이다.

문태준 시인을 재창간호 초대 시인으로 선정한 데 대해 신달자 편집주간은 "문 시인은 훌륭한 시인이며 〈유심〉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문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창간호에는 구중서 · 유자효 · 홍사성 등이 신작 시조를, 오세영 · 정호승 · 임연태 등이 신작 시를 발표했다. 특히 '다시 읽는 무산 시'는 무산 스님의 시와 이에 대한 단상을 읽을 수 있기에 눈길을 끌었다. 무산 스님의 대표작인 '아득한 성자'에 대해 이숭원 편집위원은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하루살이가 성자로 보인다. 그것도 아득히 높은 자리의 성자로. 무산 스님은 일상의 관념을 뒤집어 하루살이가 성자가 되는 불이(不二)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상찬했다.

'다시 읽는 만해 한용운'에서는 백승호 국민대 교수가 현대 우리말로 번역한 〈조선불교유신론〉을 수록했다.

신달자 편집주간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심이다. 인간이 느끼고 확장해 나가는 세계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잡지를 만들고자 한다"며 "〈유심〉은 앞으로 남을 우리로 받들어, 필자와 읽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잡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철규 편집위원은 "(〈유심〉이) 그윽한 멋과 은은한 맛을 잃지 않는 잡지가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재창간 소감을 밝혔으며, 김지윤 편집위원도 "루쉰은 길을 희망에 비유했다. 함께 걷는 걸음들이 겹쳐지며 더 많은 마을들이 모이고 더 넓은 길, 더 멀리까지 펼쳐질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양회는 〈유심〉 재창간을 기점으로 무산 스님의 문학정신을 선양 · 계승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산상(霧山賞)'을 제정 · 운영키로 했다. 권영민 이사장은 "내년부터 운영될 '무산상'은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50~60대 문화예술인을 시상하게 될 것"이라며 "유심작품상은 젊고 활력있는 30~40대 중진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학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양회는 〈유심〉 재창간을 기념하는 시낭송 음악회를 오는 9월 23일 서울 성북구 무산선원에서 연다. 시 낭송회는 재창간호 수록 시인들의 신작 시 낭송과 가수 최성수, 래퍼 치타, 서울대 음대 현악4중주단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연문도회 '제9회 불화이야기'展

9월 5~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10월 13일까진 대구 불광사서



전연호 作 '104위 신중도'.

불교미술을 전승하고 있는 본연문도회 '불화이야기'가 회원전을 연다.

본연문도회 '불화이야기'는 9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39일간 '제9회 불화이야기' 전시회를 대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본연문도 기존 작가들을 비롯해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불화반 학생 등 회원 27명의 불화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1998년 결성된 '불화이야기'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본연 전연호 선생의 지도 아래 20년 넘게 불화를 계승 · 연구하고 있으며, 뛰어난 불화작가들을 배출했다. 기도와 수행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며 예술 작품으로써 불화를 알리기 위해 2년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제9회 불화이야기 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대구문화예술회관 13전시실에서 열리며, 9월 11일부터는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으로 장소를 옮겨 10월 13일까지 전시회가 이어진다.

전연호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 이사장은 "어려운 것은 버리고, 보다 쉽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불화이야기 회원들은 전통을 계승 · 발전시키는 주역들"이라며 "앞으로 '불화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한국 불교미술 발전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9월 16일 가을 발표회

동국대 혜화관 세미나실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남수영)는 9월 16일 오전 9시 서울 동국대 혜화관 세미나실에서 '2023 가을 논문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기무라 키요타카 도쿄대 명예교수가 '화엄사상연구의 제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현대 공감이론의 주요 논쟁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고찰과 불교윤리-불교 윤리의 자비 관념을 중심으로(오현희, 동국대) △일본 타이마만다라의 조성과 판본의 유통(이승희, 순천대) △불교와 칸트의 철학적 체계 비교 연구-공과 선험성 개념을 중심으로(표석환, 동국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이충현(동국대), 김선희(동국대), 류제동(서강대)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의 학회 후원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하동 쌍계사 불교조각, 면면을 살피다

한국미술사연구소, 10월 7일 학술대회

하동 쌍계사 불교조각들의 면면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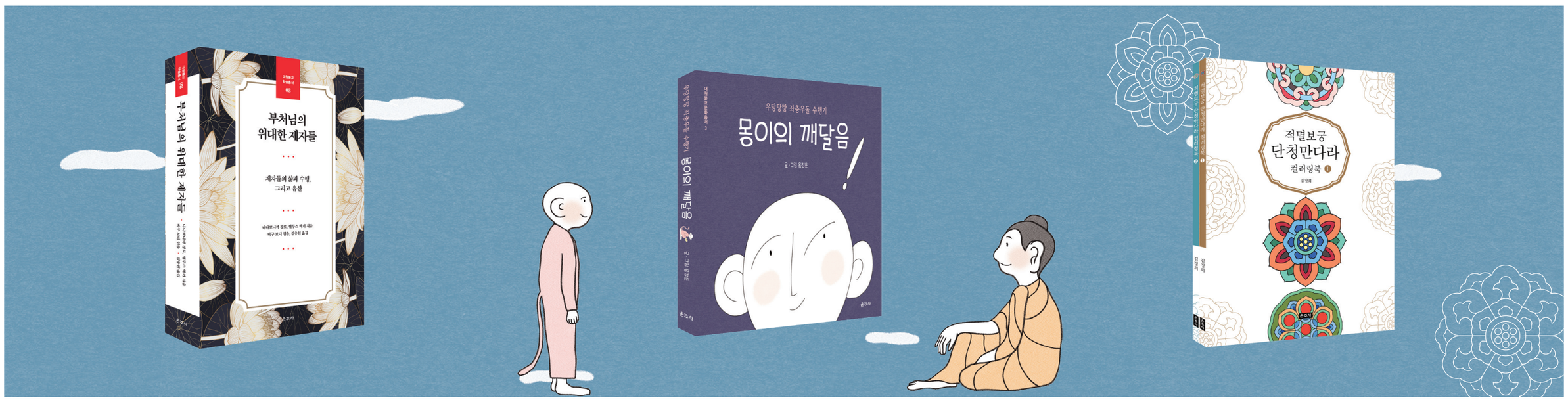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10월 7일 오후 1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천년선찰 하동 쌍계사의 불교조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의 축사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쌍계사 불상의 성격과 대웅전 삼세불상 및 고려 건칠아미타불상의 종합적 연구' 주제 기조발표로 시작되며, 쌍계사 주요 불상들의 연구논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논문은 △쌍계사 나한전 십육나한상의 연구(손영문, 문화재청 문화재상임전문위원) △쌍계사 명부전의 지장시왕상 연구(심주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행정관) △쌍계사 사천왕상의 연구(주우완, 우석대 교수) △쌍계사 문수 · 보현동자상 연구(고승희, 前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이분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팀장, 강삼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관, 이수예 동국대 교수,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문무왕 前동명대 교수의 '쌍계사의 조선시대 역사' 논문발표도 이뤄진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음을 증명하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을 통해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냐나뽀니까 장로, 헬무스 헥커 지음/김충현 옮김/신국판/728쪽/값 40,000원

수행 입문자를 위한 명상 카툰!

몽이의 깨달음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좌충우돌 몽이의 생각과 성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용정운 글, 그림/사륙배판 변형/236쪽/값 17,000원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